



# 나무가 되어버린 소녀, 이레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수많은 반짝이는 별똥별이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던  
날이었어요.

별똥별이 쏟아지던  
그 다음 날, 깊은  
산속에서 사냥을 하던  
사냥꾼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 저게 뭐지?"

작은 운석이  
떨어진 곳 옆에서  
회색빛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초록색 커다란  
눈을 가진,  
조용하고 마른  
어린 소녀를  
발견한 거예요.



"얘야, 너는 누구니?  
어디서 왔니?"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다란 눈으로만 사냥꾼을  
바라보았어요.

"음... 그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게. 이레! 어떠니?"

사냥꾼 아저씨는 소녀에게  
이레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아빠와 딸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레는 사냥꾼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자랐어요.  
"이레야, 맛있는 고기 구워줄게!"

"아빠... 저는 고기는 안 먹을래요."  
"그럼 뭘 먹고 싶니?"  
"풀이랑 열매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레는 고기는  
먹지 않고 풀과 맛있는 열매만  
찾기 시작했죠.

해가 쨍쨍한 날이면  
이레는 오두막 앞에  
앉아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아, 기분 좋다!"

이레가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느끼며 햇살을  
온몸으로 들이마시는  
모습은 마치 식물 같았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레는 얼굴을  
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라라라~  
비야  
고마워~"

그녀의 노랫소리에 맞춰  
숲속의 오래된 나무들도  
바람에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함께  
노래하자, 이레야!"

사냥꾼 아빠는 이레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깊은 사랑으로 딸을 아껴주었어요.



“이레는  
내 소중한  
딸이야.”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 큰 전쟁이 터졌어요.

"이레야...  
아빠가  
전쟁터에  
가야 한다."

"아빠, 언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사냥꾼 아저씨는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이레는 매일 오두막 문밖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어요.

"아빠...  
언제  
와요?"

숲의 친구들도 이레의 슬픔을  
함께 했어요.

겁이 많아 늘 숨어 지내던 작은  
새도 이제는 이레의 어깨에  
앉아 지저귐어요.

"이레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한쪽 날개가  
조금 상해  
멀리 날지  
못하는 꿀벌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레야, 울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생쥐도 이레의 손가락을  
톡톡 건드리며 말했어요.  
"나도 여기 있어, 이레야."

3년, 4년, 5년...  
시간이 흘러가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곁에는  
항상 꿀벌, 생쥐,  
작은 새가  
있었어요.

"이레야, 우리 함께  
햇볕 쪄자!"

"비 오는 날에도  
같이 노래하자!"

"슬플 때는 우리한테  
말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이레가  
말했어요.

"친구들아,  
우리 아빠를  
찾으러 가자!"

"좋아, 이레야!  
같이 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어디든  
따라갈게!"

산을 떠나던 날, 오래된  
나무 할아버지가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레야, 잘 가거라.  
조심해!"

이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친구들! 꼭  
다시 올게!"





넓은 세상 밖으로 나온 이레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첫 번째 마을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 좀 봐!

머리카락 색깔이 이상해."

"눈동자도 너무 특이하네."

"꼭 요정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

꿀벌이 이레의  
머리카락  
속으로 숨으며  
말했어요.

"이레야, 여기  
너무 시끄러워!"

생쥐도 몸을 바짝  
웅크리며 말했어요.  
"사람들 발에  
밟힐 것 같아!"

이레가 햇살을 받으려고 팔을  
벌리자,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 아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정말 이상한  
아이네!"

이레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다음 도시에서는 더욱 심했어요.  
이레가 맑은 빗속에서 얼굴을  
들고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저 아이  
미쳤나 봐!"



"비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다니!"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작은 새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레야,  
위험해!  
빨리  
피하자!"



이레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왕국의 가장 큰 도시에서 교회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이 이레를  
보고 말했어요.

"저 아이는  
이상한 존재다!"

"나쁜  
아이일지도  
몰라!"

"탑에  
가둬야겠어!"

결국 이레는 높고 외로운 탑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탑 안에서도 꿀벌, 생쥐,  
작은새는 이레 곁을 지켰어요.

"이레야, 우리가  
있잖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었어요.

"거꾸로 서면 너는  
나무가 될 수 있어."

꿈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레의  
귀에 속삭였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밤마다  
이레를 찾아와 말했어요.

"거꾸로 서면 너는 나무가 될 수 있어."



이레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무가 되면  
어떨까?"

꿀벌이 말했어요.

"나무가 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생쥐도 말했어요.

"모든 나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

작은 새도  
지저귐어요.

"그럼 우리도 이레  
가지에서 살 수  
있겠네!"



이레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좋아! 나는 나무가 될 거야!"

"이레야, 정말?"

"응! 그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이레는 탑 안에서 매일매일  
물구나무를 썼어요.

"하나, 둘, 셋...  
힘들지만 참자!"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응원해줬어요.

"이레야, 힘내!"

"포기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백 일을 꼬박 물구나무를  
선 이레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  
내 손에서  
뭔가  
나오고  
있어!"

이레의 두 손과 회색빛 머리카락에서  
굵고 튼튼한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와! 이레야,  
정말 나무가  
되고 있어!"  
꿀벌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다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있어!"  
작은 새도  
기뻐하며  
지저귐어요.

"이레의 몸이 나무 기둥  
같아지고 있어!"  
생쥐도 놀라며 말했어요.

"와! 이제 정말  
나무가 됐어!"

"이제 더 이상  
탑에 갇혀있지  
않아!"

이레의 뿌리는 탑 아래 땅속 깊이  
박혔고, 가지는 탑의 창문을 뚫고  
하늘 높이 쭉쭉 뻗어 나갔어요.

이레는 굳건한 나무가  
되어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빗물을 마셨어요.

숲속의 나무들이 말했어요.

"이레야, 환영해!  
이제 우리 친구야!"

"함께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자!"

"비 오는 날에도 함께  
기뻐하자!"



꿀벌의 상처  
입었던 날개가  
완전히  
나았어요.  
"와! 내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어!"

작은 새는 드디어  
두려움 없이 높은  
가지 끝에 앉아  
노래했어요.  
"라라라~ 이제  
무섭지 않아! 온  
세상에 내 노래를  
들려줄 거야!"

생쥐의 눈도 밝게 빛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여!"



"이레야,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자!"

"맑은 햇살 아래서  
바람의 노래를 듣자!"

"빗방울이 떨어지면  
함께 기뻐하자!"

이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이제 정말 행복해!"



나는 오늘도  
하늘의 고래를 꿈꿔요

by PWS